

샬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생수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SFC대대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FC대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입니다.

첫째 날 저녁 경건회의 제목은 "하늘을 보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4:1~11절 말씀을 토대로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앉아 있는 스물네 명의 장로를 말씀하시면서 화려한 보좌는 세상의 왕들의 보좌보다 높음을, 스물네 명의 장로는 친구약 성도들의 대표를 나타내며,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 또한 보좌에 앉아 있음은 우리 역시 왕임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역시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어 내려놓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는 예배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려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즉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첫째 날 저녁 경건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경건회의 말씀은 "잔인한 세상, 긍휼의 목자"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잔인하게 편잔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왕은 메시아가 오셨으니 불안했음을 이해하겠으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가 난 헤롯왕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힐까 근심하여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등장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 보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시며, 메시아는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왕이심을 헤롯과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 14:14절, 15:32절에서 공통적으로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보여주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이며, 단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가엾어 하는 것이 아닌 네가 아프면 나는 창자가 끊어진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자신의 종들,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또 헤롯왕과 대조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으시는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양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목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양이기에 티가 납니다.

마지막 날에 목자는 마태복음 25:32~33절에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시며 티가 나는 우리 양들을 예수님께서 구분해 주십니다.

우리는 티가 나는 양들이기에 이 잔인한 세상에서 구별된 양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마태복음 25: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을 따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당연히 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저녁 경건회의 말씀은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로 ‘작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작은 그리스도 같이 보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 20절에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서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눈앞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획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는 기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새로운 종족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23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20절에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위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승진해서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우리의 믿음 때문

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23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내칠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통받는 때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만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니게르(흑인)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사울과 같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을 했던 것을 보면 교회란 세상에서 소외되든, 낮은 위치에 있던, 과거가 어퍼하던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새로운 종족들의 본거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퍼즐을 맞추는 때에 안 맞는 조각끼리 맞추려고 한다면 절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는 조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맞는 조각끼리 계속 맞추어 가다 보면 전에는 맞지 않았던 조각끼리도 반드시 맞아들어가고 결국은 퍼즐이 완성되듯이

교회 공동체 또한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젠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청년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주권이 생수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